

삼위 일체 대축일

기도서 P. 320

제 1독서 (출애 34, 4-6. 8-9절)

제 2독서 (고린후 13, 11-13절)

복 음 (요한 3, 16-18절)

숲 정 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이 수 현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5098)



구원은 가능한가?

한 시 문 신부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 주셔서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요한 3장16)

복음의 축소라 할 수 있는 유명한 성서구절이다. 단순히 하느님의 사랑을 선포하는데 그치지 않고 역사의 한 가운데 전개되는 하느님의 사랑을 나타낸다. 아버지 하느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낸 사실, 즉 말씀이 육신을 이룬 사실이 미치는 결과는 인간을 구속하는데 있어서 하느님의 일방적인 명령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인간이 참여해야 할 영역이 있다. 인간은 누구나 생명과 파멸에 대한 판가름의 문제를 앞에 놓고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신앙상의 선택의 의무를 가진다. 신앙이란 전 인격의 행위이다. 신앙은 그 본질에 있어서 지성에 관련된 것이기 전에 실존적이고, 윤리적인 것이며, 하느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

크리스찬이 신앙하는 삼위일체인 하느님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1 요한 4, 16) 하느님은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을 응시하시고 벌을 주시며,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복종을 요구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오늘의 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하느님은 자신의 만족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움직이시는 분, 더욱 방망하는 자식이 집에 돌아오기까지 안심하지 못하는 아버지 같으시다. 그분은 사람을 억지로 복종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달래신다. 이러한 하느님의 사랑에서 이 세상과 인간에 대한 구원의 기원이 시작된다. 인생의 구원은 하느님에게서 시작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느님이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분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신 하느님의 사랑은 우주적 본질을 지닌다. 하느님의 사랑은 한 나라, 한 민족이나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한하지 않고 온 세상을 향한 사랑이다. 하느님의 광범한 사랑은 사랑스럽지 않고, 사랑하기 어려운 자들, 아무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는 외로운 자들, 하느님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자들, 하느님의 사랑에 반역하는 자들까지도 포함한다.

이러한 하느님의 사랑에서 기원된 하느님의 구원사업은 이 세상만물과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기에 하느님의 구원은 이 세상과 모든 인간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구원은 하느님의 은총의 선물이지만 하느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 있어 구원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훈을 믿고 우리의 전부(생명, 영혼, 운명)를 그에게 맡기고 그의 교훈을 따라 생을 영위한다면 구원은 가능한 것이다. (해성학교 종교감)



옛날의 가뭄 대책?

—내해 이사금(奈解尼師今)이 즉위하였다(서기 196년) 왕은 벌휴왕(伐休王)의 손자인데, 어머니는 내해부인(內禮夫人)이고, 비(妃)는 서씨로 조분왕(助賁王)의 누이동생이었다. 왕은 용모가 뛰어나고 재능이 있었다. 그런데 전왕(前王=伐休) 태자 골정(太子骨正)과 제 2왕자 이매(伊買)가 먼저 죽고 대손(大孫=嫡孫)이 아직 어리므로 이매의 아들을 세우게 되니 이가 곧 내해 이사금이다. 이해(196년) 정월부터 4월에 이르기까지 비가 오지 않았는데, 왕이 즉위하는 날에 이르러 큰 비가 내리므로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며 하례하였다.

3년(198년) 5월에 나라의 서쪽 지방에 큰 홍수가 있었으므로, 왕은 수제지역의 주·현(州縣)에는 1년동안의 세금을 면제시키고, 7월에는 사자를 그 지방으로 파견하여 위문하고 민생을 안정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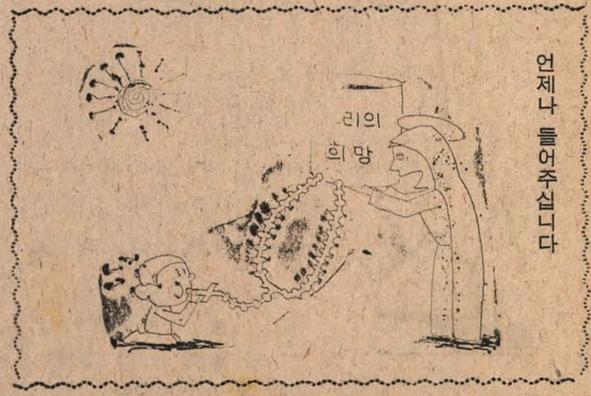
6년(201년) 3월 1일에 일식(日蝕)이 있었는데, 큰 한재(旱災=※ 가뭄로 말미암아 생기는 재앙)가 들므로 왕은 내외의 죄수들을 보살펴 경(輕)한 죄수들은 모두 석방하였다.

15년(210년) 봄·여름에 한재가 들므로 왕은 사자들 각 군·읍(郡邑)으로 파견하여 감옥의 죄수들을 다시 살피게 하고, 이죄(二罪=사형죄, ※ 강도와 절도, 유사(有赦)할때 쓰는 용어로서 상사(常赦)에서는 제외되었음)를 제외한 모든 죄인들을 석방하였다.

31년(226년) 봄에 비가 오지 않더니, 7월에 이르러서야 비가 왔다. 이때 한재로 인하여 백성들의 기근(饑饉=※ 굶주림)이 심하므로, 왕은 창곡(倉穀=※ 곳집에 저장된 곡식)을 풀어내어 이를 구제하고, 10월에는 내외의 감옥 죄수들을 다시 살피 경한 죄수들을 석방하였다.

—(三國史記, 卷第二(新羅本記 第二) 十에서 발췌)
※표는 <새 우리말 문사전>의 뜻풀이 임

숲 정 이 산책



언제나 들어주십니다



파티마 성모님을 피시고 유 종 소(베드로)

찬미 받으소서.

애타게도 그리던 어머니,
생동하는 대지위에 5월의 훈풍과도 같은
따스한 자애를
어떻게 보답하리까.

이제는 외롭지가 않습니다.
당신을 우러러 뵈올 때마다
생명의 불은 훨훨 타고
이제는 두려움이 있을리 없습니다.

어머니,
영원한 마음의 주보이신 어머니,
당신을 위해 어떻게 하오리까!?

순결과 인자,
희생과 봉사가 당신의 표상일진대
따르리라 굽어보시고
무궁세에 찬미받으소서.

-78년 5월 13일 밤,
파티마 성당, 사도회 부회장

5월의 마돈나 앞에

장 크리스티나

오! 땅위에서 빛나시는 이여!
영원히 거룩하신 동정(童貞).
장미꽃 처럼 우리의 소망을 피어나게 하시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
어머니 앞에 간절한 기원을 드립니다.

-어머니 시어!
더 밝고, 더 높은 은총 안에서
따스한 손길로 메마른 마음을 덜어주소서.
사랑의 햇불로
어두운 마음을 밝혀 주소서. -

모진 풍랑에서 허우적 거릴 때
또, 기로에서 헤매었을 때
굳건한 삶의 좌표를 제시하여 주시고
영원의 나라를 약속하여 주신 마돈나.
잔잔한 물무늬 같은 인자함을 보내주시는
오월의 마돈나 앞에
오늘도 간절한 기원을 드립니다.
(월명동 본당, 신창 공소)



주님안에 우리 한 형제 김철식

젊음이 약동하는 희망의 계절, 여기 주님안에 형제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보다 가치관있는 신앙생활을 영위하고자 『본당과 공소의 젊은 청년들이 뜻을 같이하여 진안 가톨릭 청년 연합회를 결성한 것입니다.

우리는 젊음이 피끓는 청년들입니다. 무엇을 주저하고 무엇을 망설이고 있습니까? 우리 다같이 주님의 참된 아들로서, 이제 깊은 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저 찬란한 태양과 신록들의 힘찬 희망의 속삭임에 단혀진 신앙의 문을 열어, 보다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야고보는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야고보서 2장 14-26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로만 해오던 신앙생활을, 행동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합시다. 또한 주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오신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마태오 20장 28절). 우리도 주님의 겸손을 본받고, 순수한 마음과 은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젊음의 타오르는 신앙의 불꽃을 피우도록 합시다

이번에 처음으로 결성된 청년회 모임이 정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신자분들의 격려와 지도를 바라오며 당신의 종들을 불러 주시어 청년회 발족을 갖게 해주신 주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진안 가톨릭 청년연합회 회장)

□ 작은 등불 □

신태인 본당 영신회,
사제양성 헌금하고 은퇴신부님도 방문.

신태인 본당 영신회에서는 대표 세사람이 지난 15일, 사제양성을 위한 헌금 5만원을 교구 사제양성 후원회에 전달하고, 은퇴신부님들을 찾아 인사를 드렸다.

취약지구 본당이라 할 수 있는 신태인 본당은 금년도 사순절 동안의 사제양성 후원을 위한 성금 모금에, 비록 신자 1인평균 45원꼴 이지만, 10만 1천 40원의 헌금을 모았다. 그러나 이 실적은 작년도에 비해 131%라는 증가를 보인 것이다.

사실, 사순절 동안의 사제양성 후원을 위한 성금 모금이 교구 전체로 보아 지난해의 그것에도 미치지 못하는 99%의 실적을 거두고 있음을 볼 때, 신태인 본당에서 10여만원의 헌금을 하고도 또 영신회에서 5만원을 모아준 일은 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일생을 바쳐 양들을 돌보시다 은퇴하고 계신 신부님들을 찾아 인사드린 일도 우리의 거울이 될다 하겠다.

□설계·감리·허가수속□ 하느님의 성전과 교형자매들의

보금자리 건축에 피소식!!!



신원 건축 연구소

1 급 건축사
김 철 수 (금구<연>)

☆ 전 주 가톨릭 센터 220호실
전화3-7780, 3-〈야간〉1449

교우 여러분의 성원속에 자라온 한국은수는 적은 자본으로 자립하고자 하시는 분을 구합니다. 감경, 함열, 황등, 신태인, 대야, 진안, 장계, 고창, 순창 각 1개소 위와같이 대리점을 증설코져 하오니 아래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流 은수 은돌 공사

(본사 지역 호남 필장소)

전주 ③ 4341 군산 ② 3032 이리 8629
한 동 압 (모이세)

교도소 출입有感

이 순 성 신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어디선가 많이 들어온 문구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 문구를 실제 표구어로서 지극히 애용하고 교도소에 출입을 하게된지 벌써 5개월이 된다. 그 사이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그것들을 한달음 필설로 표현한다면 아마 꽤 오랜시간을 들여 읽거나 들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지면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매년 교도소 출입 때마다 느끼는 꼭 같은 생각 한가지가 있다. 그것을 다음과 같은 질문형 문장으로 표현하고 싶다.

그들이 과연 죄인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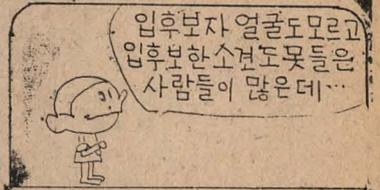
순하게 보이는 8×2번, 아직도 바깥잔 불의 소년티나는 ×7번, 성가 부를때 보이는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봉어입 모양의 6××번, 마치 소박한 거북이의 눈망울처럼 꺼멍 꺼멍한 눈으로 인사하는 3×5번 등등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너무도 자연스런 인간 그대로의 그들이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죄인이라 불리워진다. 그리고 죄인이라 불리워지기 때문에 교도 받기 위해 극히 제한된 자유를 허용 받는데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모습이 자연인간 그대로 보이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물론 그들은 범죄하였다. 그러기에 죄인이었다. 그러나 한번 죄인이었다 해서 영원한 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에게 창조된 인간치고 자신이 저질은 잘못에 대해 뉘우침을 느끼는 인간은 없을 것이며, 더우기 스스로 영원한 죄인이 되길 원하는 인간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이면 누구나 지나간 과오를 후회하기 마련이며, 후회하는 그만큼 죄인이었던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죄인이라 불리워지는 수인들의 모습이 자연인간 그대로 보이는 것은 한번 죄인이었던 그들이지만 이미 지나간 과오를 후회하면서 참다운 인간에의 길을 찾아 나섰거나 이미 찾아 얻었기 때문이라.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을 죄인이라 판단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여기에 있는 것이며 그러기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문구가 설득력 있는 표구어고 교도소에서 애용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과연 죄인인가?”하는 의무적인 생각이 계속 나의 머리를 스쳐가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노릇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갑자기 주님, 주님께서 언제 굶주리고 목마르셨으며... 감옥에 갇히셨던 일이 있었기에 저희가 알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고(마태오 복음 25장 44절)의 말씀이 생각나 구설을 무릅쓰고 이 글을 쓴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부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파하는 분은 저에게 연락 주시길 바란다

(천동 보좌신부)

요심이 (251) 김병오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임금님чат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② 5 0 1 3
김원준(야고버)

◇경윤기·분무기·전자동 탈곡기
트랙터·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엽(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아크릴·아취·실내장치·각종간판
페인트·집칠

전주 광고사

대표 이 기 배(요비노)

□ 전주시 다가동 1가 18
☎ ② 15 8 5
◎ 감초당 약국 앞

각종 보일러 시공담당(시공면적30호)

새마을보일러 전북총판

지역대리점 모집

중앙설비상사

전화 ③ 5 6 1 4
전주시 금암동 710~11

□각종카텐·응접세트·의자·철재
책상·목재비품·기타일체(판매 및
수선)

대건공업사

전주시 서노송동 605의 43
(가톨릭센터 앞) 전화 ③7166
장 기 수(다두)

◎ 건강 관리 센터 ◎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을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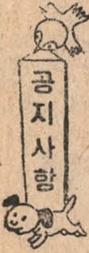
(시내버스 승차장)
전주 육교옆 중앙시장통
(전화 ⑤ 4577, 5789)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1. 사제양성 후원을 위한 사순절 성금의 마무리를 잘 지읍시다.

- ① 아직도 집안에 폐지 저금통이 남아 있는지 찾아봅시다
- ② 받아가신 폐지 저금통은 빈통으로라도 반드시 분당에 다시 넣시다
- ③ 총 누계 4백42만6천5백5원 (1인 평균 73원, 전년도 대비 실적 99%)
- ④ 1인 평균 최고액...무주 본당의 170원, 전년도 대비 실적 최고...술정이 본당의 261%
- ⑤ 사순절성금 마무리 안된 분당-김제·월명동·황동·전동·진안-은 금주내에 완결합시다
- ⑥ 전년도 대비 실적이 150% 미만인 본당은 가정방문 등을 통하여 폐지저금통 회수에 최선을 다합시다

2. 레지오 마리에 곤칠리움 (국제본부) 사절 맥그라드 신부, 전주 꼬미시움 방문 (오늘)

- ① 12시: 환영식사(칠로암)...우리아 단장 참석 바람
- ② 오후 2시: 꼬미시움 회합(전동성당)

3. 성체회 수녀원 종신 서원식 (25일<목> 11시, 중앙성당)

4. 조국을 위한 칠로기도회 4주년 기념 강연회 (22일<월> 오후 8시, 가톨릭센터)

- ① 연사: 이문영 교수, 해직된 통일방직 근로자
- ② 해직된 통일방직 근로자를 돕는 손수건(200원) 판매 및 예비진자 준비물: 쌀1되, 취사도구, 모포 출발집결지: 27일 (토) R.M 3시 시외버스터미널

5. 학생등반대회: 일시(5월 27일~28일), 장소: 순창강천사. 회비: 1,700원, 참가자격: 전문학교이상 신자

6. 사회 정의 세미나 및 정의평화 기림미사 (29일<월>)

- ① 사회정의 세미나 (11시~오후 4시, 가톨릭센터)...주제: 농촌문제
- ※ 교구내 모든 신부님, 수도자 관심있는 평신도 참석 바람
- ② 정의평화 기림 미사 (오후 8시, 전동성당)...김재택 주교 주례
- ※ 전주 시내 본당은 당일 미사를 없이하고 이 미사에 참여토록 적극 권장 하시기 바람

(중앙)

전화 ③3651 ④3874

주임 신부 서웅복
보좌 신부 정영배
보좌 신부 임태석
사도 회장 이복석

- 1. 성모회 월례회: 21일 공식 미사후(양로원).
- 2. 유아세례: 26일<금> 어머니 미사후
- 3. 우리아 옥외행사: 27일<토> 오전 11시(상관수원지)
- 4. 주일학교에 노보시다: 토요일 오후 3~5시
- 5. 28일 주일부터 새번역 성경을 사용합니다. (사무실에서 판매함)
- 6. 밀린 교부금을 냅시다
- ※ 견진사진 찾아가세요 (사무실)
- 지난주 봉헌금: 173,032원

(노송동)

전화 ④ 7032

주임 신부 공아영
보좌 신부 권용희
사도 회장 김성복

- 1. 환영! 제수형제회 전복 회원들
- ※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 저녁 미사후
- 2. 기념행사: 신용조합 자산 1억원 돌파 기념행사: 공식 미사후(성당), 참석하신분들 기념품 증정
- 3. 남노송동 가정방문: 23일<화> 오후
- 4. 인후동 반회합: 22일<월>-베드로반과 가잠반 26일<금>-요셉반과 동원반
- 5. 예비자 교리반 개학: 오늘부터 예비자 교리 시작 금일 공식 미사후 예비자와 첫형성체 하지 않은 중·고생은 소성당에 모여주세요
- 6. 성모의 밤 행사: 27일<토> 오후 8시, 많이 참석하세요
- 지난주 봉헌금: 83,877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석기
사도 회장 유제상

- 1. 성모상 주위 화분 구입해 주신분: 권세리아, 임로사리아, 최마리아, 김요안나, 박가타리나, 정앨리사벳, 김베로니카, 홍테레사
- 2. 어린이교리: 주일-오후 2시, 미사-3시
- 3. 영어 성경연구 회원모집: 대상-중·고생 많은 접수 바람
- 4. 다음주 신자들의 기도: 송영기, 이준민, 김명준 미사해설: 이철중
- 5. 다음주 평신도 강론: 엄기섭(요셉)
- 지난주 봉헌금: 36,245원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조성호

- 1. 성모의 밤 행사: 5월 28일 저녁 미사후 초지참 (각 신심단체에서는 기도, 꽃 봉헌) 레지오마리에, 사도회, 성우회, 부녀회, 학생회, 주일학교
- 2. 반회합 회의: 29일<월> 오후 8시
- 3. 성우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 미사후 (박흥기형제력)
- 4. 파티마 성모상 가정방문 21일(주일)-박중현, 22일(월)-이영우, 23일(화)오 부용 24일(수)-송진우 25일(목)-소제순, 26일(금) 양남래 27일(토)-이순례
- 5. 복자 신용조합 이사회: 오늘 공식 미사후

장소: 신용조합 회의실

- 6. 오늘 1일 교장: 김성원 다음주 1일 교장: 양규철
- 지난주 봉헌금: 71,980원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박장춘

- 1. 축영세: 27명 한가족 되었음을 진심으로축하합니다
- 2. 부녀주일: 10시 미사후
- 3. 축! 공동체 묵상회: 오상광, 김재열, 김명숙
- 4. 감사합니다. 성모상 조건: 한형수, 오창순 제대초, 봉헌: 구양태 준공경사제: 사도임원 및 김길성씨
- 5. 기도바람: 은요안, 오마리아의 병중환자
- 지난주 봉헌금: 53,885원

(숲정리)

전화 ④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 1. 축! 영세: 37명 축하합니다
- 2. 숲정리 어머니 합창단 발족 모집안내 대상: 45세미만 어머니 일차: 25일<목> 오후 2시~3시 지도자: 유지원 담당수녀님
- 3. 예비자 신청안내: 본당 사무실에 수시로 접수 교리시작: 매주 화, 수, 목 오전 10시~11시
- 지난주 봉헌금: 110,76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이순준
보좌 신부 유유석
사도 회장 유유석

- ※ 성모성월: 매일밤 루르드굴 앞미사 (밤 8시)
- 1. 꼬미씨움 월례회: 오후 2시
- 2. 울뜨레야: 저녁 미사후
- 3. 견진성사: 오늘 10시 미사
- 4. 예비자 교리: 주일, 수요일, 금요일
- 5. 성당의자 신입액: 977,500원
- 6. 신축기금 미납자는 5월 말까지 완납 바랍니다
- 7. 가정방문: 동·서원산동
- 지난주 봉헌금: 147,830원

(파티마)

전화 ③7249

주임신부 문정현
사도회장 채수현

- 1. 대학생 회의: 공식 미사후 본당 신부 사무실
- 2. 예비자 교리: 6월 2일부터 매주 금요일 7시
- 3. 어머니미사: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 4. 유아세례: 매주일 저녁 미사전
- 5. 병자방문: 매주 목요일
- 6. 새살림 준비
- ①주주상: 조야니스 ②성함: 이안나 ③제대보: 이현재 ④오르케: 해성신자신생 ⑤전자오르겐 (익명신자 50만원) ⑥제병포도주: 김글라라
- ※ 본당 사무실 비품 (캐비닛, 책·결성), 제의장은 아직 신청이 없읍니다
- 7. 교부금 납입자
- ①김영순 3천원, ②정세찬 3만원, ③김성녀 8천원, ④박남주 3천원, ⑤소나님 2천원
- ※ 파티마 성모 환영미사 헌금: 31,140원
- 지난주 봉헌금: 30,260원